

## 3월 실국장회의 모두말씀자료(시장님)

'21.3.8.(월) 14:00 / 온나라PC영상회의

### □ 봄 인사 및 격려

지난 3월 5일은 삼라만상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이었음  
지난 한 달 동안 봄이 성큼 찾아온 것처럼  
우리시가 겨우내 준비한 많은 사업과 정책들도  
지난 한 달 동안 눈에 띄는 성과를 보여주었음

우선 12년 동안 방치되었던 송도 투모로우 시티를  
치열한 경쟁과 준비 끝에 **대한민국 1호 스타트업 파크**로 탈바꿈시켰음

또한, 지난 3월 2일에는 SK, 현대차 등과 함께  
수소산업기반 협약을 체결하여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수소 거점도시**로서의 입지를 다졌음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통해 인천의 경제를 고부가가치화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겠다는 목표에 한걸음 더 나아간 것임

10년 넘게 진행되지 않았던 **송도 세브란스 기공** 역시 중요한 성과임  
세브란스 기공은 지역 의료여건 개선과 함께  
산업, 대학, 연구소, 병원이 함께 송도를 **바이오산업 클러스터**로 만드는  
마지막 퍼즐이라고 할 수 있음

한편 지난달 설 연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방역대책과 시민들의 협조로  
우려했던 코로나 19 재확산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음  
연휴도 반납하고 코로나 방역과 치료, 백신접종을 위해 애써준  
공직자와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 주문

이렇듯 지난 한 달 간 시민들께 칭찬받을 일이 많았지만  
인천 중구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은  
안타까움을 넘어 우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느끼게 만들

정인이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산 것이 불과 작년 10월임  
제2의 정인이가 생겨서는 안 된다고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외쳤지만  
결국 안타까운 사건이 인천에서 발생한 것에 대해  
심각성을 느껴야 함

우리 스스로 그동안 마련했던 대책이 한계가 있었음을,  
사회변화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했음을,  
우리 지역사회가 학대아동을 지켜주지 못했음을 인정해야 함

예산과 조직, 코로나 등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하여  
“할 수 있는 대책”이 아닌  
민과 관의 모든 역량과 자원을 투입하여 아동학대를 근절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그 시작은 교육청,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군·구 등 관계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기존 대책들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일일 것임.

기관 간 협조가 잘 될 수 있도록 **행정부시장 주관으로 점검회의를  
가동**시켜 점검해주시기 바람

등교수업 개시에 따른 학교 차원의 점검과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감시와 신고를 강화하고,  
3월말 시행되는 학대피해 아동 즉각분리제도는 물론,  
7월부터 본격 시행될 자치경찰제 등 새로운 제도들이  
실질적인 아동학대 근절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람

## □ 코로나 19 경제방역과 백신 접종 준비 철저

정부는 지난 3월 4일 19.5조원 규모의  
코로나 19 맞춤형 피해지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음  
또한, 정부가 정한 순서에 따라 백신접종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음

지난 1월 우리 시가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보완하고  
사각지대를 편셋 지원하여 지방정부 지원의 모범사례가 되었듯이,  
이번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신속 지급과 더불어  
실국별로 특별히 더 도움이 필요한 곳은 없는지 촘촘히 조사하여  
**우리시의 추가적인 민생지원 방안도** 준비해 주기 바람

백신접종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다양한 홍보를 추진하고 있고  
일반 시민의 백신접종 시기는 3분기로 알려져 있음  
다만, 여전히 많은 시민들께서 내가 백신을 언제 맞을 수 있는지,  
고령이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시민들은 내가 맞아야 하는지조차  
혼란스러워 하고 계시는 듯함

정부의 재난지원금에 더해 우리시가 보완하는 역할을 잘 했듯이  
정부의 백신접종 계획을 제대로 알리고  
**시민들이 의문과 염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실국이 협력하여 **코로나 백신 관련 소통**을 강화해 주기 바람

## □ 신도시 투기의혹과 관련 청렴한 공직문화 당부

대통령께서 지난 3월 3일과 4일, 광명·시흥 등 신도시 투기의혹 관련하여  
엄중하고 강도 높은 조사를 지시하였음.

우리시에서도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중앙부처와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하에 공무원, 공기업 직원의  
투기성 토지거래가 있는지 여부를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한 점 의혹도 없는 적극적인 조사를 실시해주시기 바람

이번 3월도 최선을 다해 시민들을 위해 힘을 내시기 바람